

지역 소식통

고창군, 음식물쓰레기 감량 우수 공동주택 5곳 선정

고창군이 1년 동안 음식물류 폐기물을 크게 줄인 지역 내 공동주택 5곳을 선정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 공동주택에는 성산아파트(165세대), 아르미아파트(89세대), 성산리차빌(20세대), 웰파크시티1.2차(260세대), 웰곡주공아파트(392세대) 5곳이 선정됐다. 이달 9일부터 31일까지 공동주택별로 3주간 간면 기간 중 음식물류 폐기물 무상배출 혜택이 제공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인센티브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됐다. 지역 내 20세대 이상 58개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감량실적이 우수한 곳에 인센티브를 수여하는 제도이다.

평가는 올해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공동주택별 총배출량을 기준으로 작년 대비 증감률 등을 꼼꼼히 데이터를 분석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구시포해안 피해복구 등 특별교부세 21억원 확보

고창군이 올해 하반기 중앙부처 특별교부세 21억원을 확보해 현안사업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고 6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재정 여건의 변동 재단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한 재정수요를 보전받는 재원이다.

군에 따르면 "하반기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총 21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0억원을 더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특별교부세 확보 사업은 ▲구시포 해안 피해복구사업(8억원) ▲노동저수지 물레길 조성사업(5억원) ▲고창읍 상소결빙구간 재해예방사업(3억원) ▲월산소하천 재해예방복구사업(3억원) ▲임도 배수시설 개선사업(2억원)이다.

'구시포 해안 피해복구사업'은 잦은 폭우, 강풍으로 인해 훼손된 구시포 연안 부근 호안과 보행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에서 꽃이피고 결실을 보리라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 개최

지난 3일 부안군이 주최하고 동학학회와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가 공동 주관하는 부안 동학농민혁명 학술대회가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면서 동시에 김종택 부군수, 문찬기 부안군외 의장, 배의명 부안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정하영 부안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운영위원장, 논문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 천도교령 등 주요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동학의 글로벌



제이션(Glocalization): 동학 문화 콘텐츠 개발'이라는 특별한 주제를 다룸으로써 '부안 백산성지 조성 및 세계시민혁명의 전당 건립'의 방향을 제시한 것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

먼저 윤석산(한양대 명예교수)의 '부안 동학 문화콘텐츠 활용의 의의와

전망'이라는 기초 강연을 시작으로 우수영(경북대학교 교수)의 '동학농민혁명과 관련된 문화 콘텐츠의 연구동향 분석과 앞으로의 과제', 김정희(한예종)의 '동학농민혁명의 음악 양상과 문화 콘텐츠로서의 잠재성', 김종길(경기문화재단)의 '동학과 민중미술의 만남', 전찬일(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 회장)의 '동학혁명과 문화콘텐츠, 그리고 한류: 동영상을 중심으로' 박대길(국사편찬위원회)의 '부안 동학농민혁명 문화콘텐츠 방안연구'까지 다방면 문화콘텐츠 주제의 연구발표를 하였다.

또한 주제발표가 마무리 된 뒤에는 조극현(경기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문화콘텐츠 분야별로 학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열린 토론을 펼쳤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 도시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한다"

정읍시, 코로나 극복 자매도시 사천시 수산물 팔아주기 '훈훈'

정읍시(시장 유진섭)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수산물 판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매도시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경상남도 사천시와 함께 '수산물 상생 합인행사'에 동참하며 지난 3일 사천시 활어회 세트 특가 판매행사를 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수산물 소비량이 감소하고, 재고 물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매도시의 수산물 판매 촉진에 힘을 보탠다는 취지다.

이날 행사에서는 시청 직원들의 높은 호응으로 활어회 370세트 1,300여만 원 어치를 판매하는 성과를 거뒀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읍시와 친밀한 교류를 해온 자매결연 도시와 연대하고 배려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해 미래에 더 많은 시너지를 발휘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시와 사천시는 1999년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농수산물 특산행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 · 지원 만전' 지시

유진섭 정읍시장, 취약계층 · 위기가구 지역사회 연계 안전망 구축

유진섭 시장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할여 달라고 지시했다.

유 시장은 지난 6일 주재한 영상간담회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와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이 필요한 위기 아동 등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위기 가구에 겨울은 더욱 힘든 시기"라며 "복지 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지역사회와 연계와 인적 안전망 구축 등을 통해 취약계층 발굴 후 공적지원과 민간지원을 신속하게 연계해 복지 틈새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또 "연말연시를 맞아 정읍에서도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나눔 활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나



유진섭 시장이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에 만전을 기할여 달라고 지시했다.

눔, 모두를 위한 사회백신'을 슬로건으로 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따뜻한 나

눔과 사랑을 전하는데 많은 시민께서 동참할 수 있도록 할 것"도 주문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공무원 협업 강화' 소통하는 공직문화 조성 '앞장'

정읍시가 지난 6일 협업 포인트 고득점자를 선정해 협업 우수공무원 3명을 선발 · 표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협업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은 총 3명으로 최우수상에 건설과 윤남식 주무관과 우수상에 도시재생과 조순선 기획예산실 인헤단 주무관이 각각 수상했다.

우수공무원 협업 포인트를 기준으로 선발했다. 협업 포인트는 직원 1인당

매월 배정받는 200포인트를 업무상 도움을 준 직원에게 감사메시지와 함께 한 번에 10포인트씩 전달할 수 있다.

윤남식 주무관은 각종 건설사업에서 타 부서 직원과의 협업으로 상습 침수 지역 배수 개선과 주민숙원사업 등 다양한 민원을 해결했다.

또 도시안전국 국 사무 업무를 맡은 조순선 주무관은 해당 국 소관 6개 부서는 물론 타 부서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추진으로 직원들로부터 높은 협업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인헤단 주무관은 간부회의 작성과 시장 지시사항 처리 등 협업이 필요한 주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각부서와 상호 소통하고 협조해 우수공무원 우수상에 선정됐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덕천마을 농촌체험휴양마을평가 ' 으뜸촌' 선정

정읍시 덕천면 황토현 '녹두랑 시루랑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2021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평가에서 1등급인 '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녹두랑 시루랑 마을은 황토현 권역에서 농촌 숙박과 각종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다. 황토현 권역의 용곡마을, 용전마을, 가정마을, 신승마을로 구성돼 있다. 또한 황토현 권역 어울림센터와 숙박시설, 운동장 등의 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사발봉문 협력활동(에코백 제작), 녹두피자 만들기, 천연염색, 치즈 만들기 등 여러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이용자의 만족감과 서비스 수준 등 제고를 위해 전국 농촌체험휴양마을을 500개소를 대상으로 평가 · 선정했다. 그 중 5개 마을만이 1등급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전북도에서는 황토현 녹두랑 시루랑 마을을 비롯해 남원시 달오름

마을이 1등급 으뜸촌으로 선정됐다.

녹두랑 시루랑 마을은 '체험, 교육, 음식, 숙박' 4개 부문에서 모두 1등급을 받았다. 등급은 '1, 2, 3, 4등급'의 4개 등급으로 이뤄져있다.

' 으뜸촌'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 농촌관광 자원과 연계한 상품 개발 등의 정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평가는 등급 결정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외부 평가 전문가인(주)한국경영인증원이 현장 심사를 진행했으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심사단이 직접 마을을 방문해 평가했다.

유진섭 시장은 "정읍시 농촌체험휴양마을이 계속해서 최우수 농촌관광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농촌의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6차 산업의 선두 주자로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